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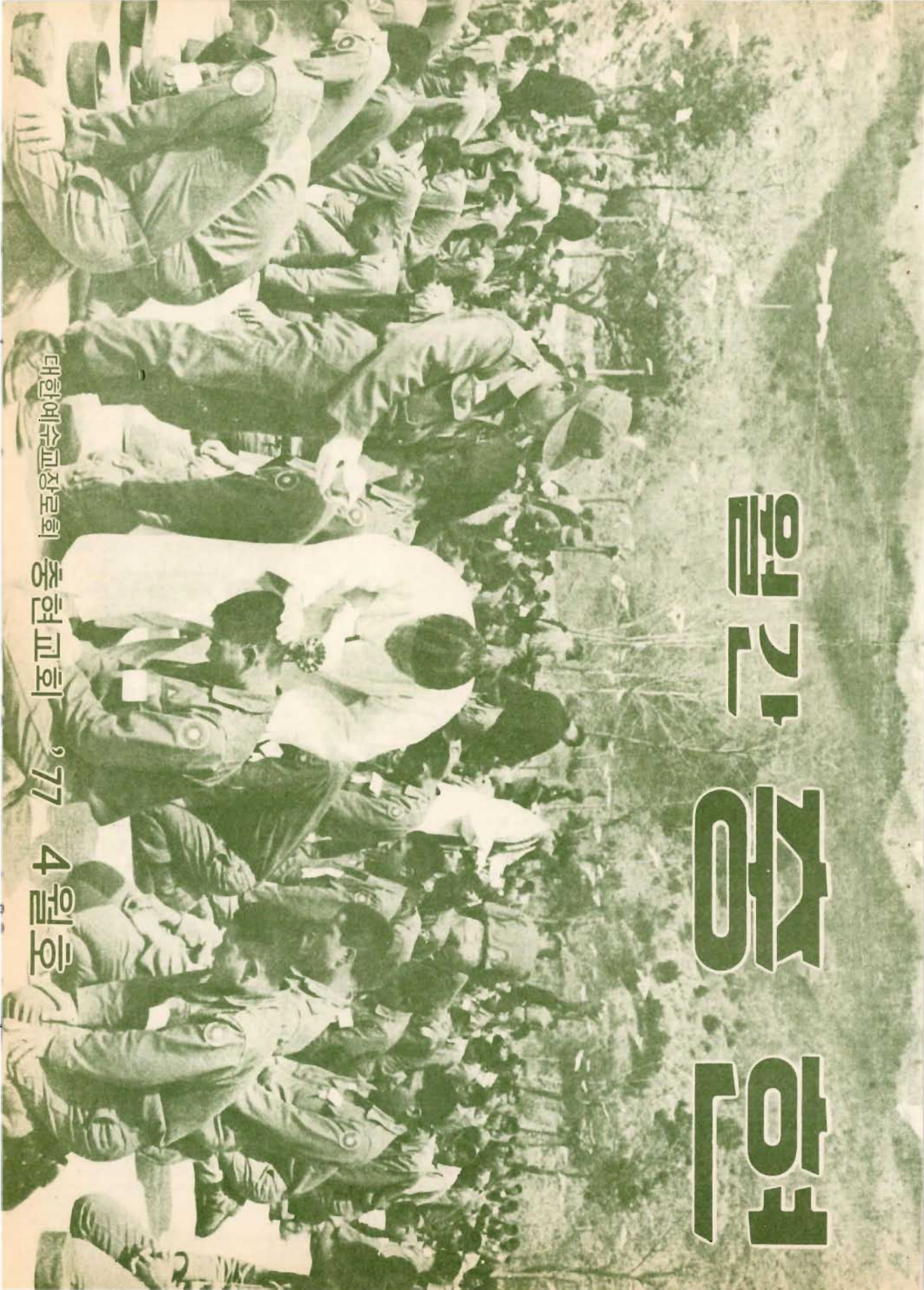
평화의 기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77

4월호





하나님의 사랑

(성경 / 신명기 32 : 6-13)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생각하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악마가 우굴거리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힘 있는 목자가 어린 양을 보호하듯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은혜를 잘 누릴 줄 알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만물을 은혜로 주신 일반적 사랑

우리가 쓰는 태양 빛, 무궁무진한 공기, 이슬과 비 땅 위에 자라나는 만산 백화, 셀 수 없는 수많은 채소와 물고기가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지으시어 모든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들이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사랑으로 나누어 쓴다면 40억이 문제 아니라 400억이 산다고 해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자연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만나도 주시고 호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눈동자는 아주 요긴하면서도 약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썹을 보호하시되 눈썹과 속눈썹 그리고 눈꺼풀을 두고 감박이게 하여 4중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원수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옛날 히스기야왕이 앗수르의 침공을 받고 흠이 없어 앉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왕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것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

새 종의 왕이라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키기를 잘 합니다. 짐은 떨어질 높은 비탈에 지어놓고 새끼가 좀 크고 자라면 날개 위에 업고 나가 공중에서 떨어뜨려 잘 날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줍니다. 사자도 새끼를 키우다가 나가서 노루같은 짐승을 잡을 때가 되면 어미가 물고 활켜어 죽지 않을

만큼 괴롭혀 줍니다. 어미 곁에 있을 수 없게 할뿐 아니라 다른 짐승과 싸움을 붙여 산 중의 왕으로 훈련시킵니다.

사람도 훈련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쁘고 곱다고만 하지 말고 사람노릇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인생이 풀기 어려운 일들을 신자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도들이여,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라. 나의 죄값으로 훈련받는 것이라면 원망 없이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큰 인물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길가는 나그네인데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 동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읍시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전부 죄 가운데서 먹고 입고 살다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 죄악을 끊을 실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복을 주시고, 세상 떠날 때 천국에 영접해 주시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읍니다.

저와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읍니다.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 누릴 줄 모른다면 큰 일입니다. 사랑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악마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충현의 여러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조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 육신도 천국생활하시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에 영접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인생이 풀기 어려운 일들을 신자에게 보내주십니다.(본문 중에서)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4월의 행사

- 1일 / 춘기 세례식
 3일 / 춘기 성찬식 · 제직회 · 재정위원회 · 건축위원회
 · 남전도회임원회 · 권사회임원회 · 월간충현 편집위원회
 4일 / 산업전도회 월례회
 4일-9일 / 고난주간
 6일 / 고난주간 음악예배 (제이성가대)
 8일 / 금식일 · 교회철야기도회
 10일 / 부활주일 · 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여전도회임원회 · 주일학교 실무자교육 · 건축위원회 · 출판위원회 · 부활주일 축하음악예배 (제일성가대)
 12일~13일 / 수도노회
 17일 / 장로투표 · 여전도회월례회 · 재정위원회 · 선교실행위원회
 18일 / 교육위원회
 19일 / 정기당회
 24일 / 교회 성경암송대회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25일~29일 / 부흥회 (아세아복음선교회 주최)

4월호 차례

- 〈말씀〉 하나님의 사랑 / 김창인 목사 2
 〈권두언〉 부활절을 맞으며 4
 〈이달의 글〉 작은 나사못 5
 〈소련 지하교회 실태〉 공산세계의 교회 말살 정책 / 다빛 · 클라센 목사 6
 〈상담자료〉 신앙과 직업 / 이준교 전도사 8
 〈특별기획연재③〉 미래의 충현주교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 최정만 12
 〈인터뷰〉 건축위원장에게서 들어보는 이야기 / 편집부 11
 〈순교사화⑥〉 17호 죄수——이기풍목사(상) / 이사례권사 14
 〈이단종교비판③〉 여호와의 증인편 / 윤형철 전도사 15
 〈1200자칼럼〉 타인들의 이야기일까? / 오태용 집사 16
 〈찬송가해설〉 감브리산 위에 십자가 있으니 16
 〈책소개〉 스퍼전 목사의 생애 / 조선근 집사 17
 〈도서정보〉 17
 〈해외선교소식〉 중동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집트를 18
 〈구역장노우트⑫〉 신앙지도의 지침 (7) 19
 〈구역소식〉 19
 〈뉴우스〉 20
 〈기자석 · 편집후기 · 표지설명〉 2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3
 〈「배초에 말씀이 있었다」중에서〉 24

월간 충현

김 창 인 목 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을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부활절을 맞으며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부활은 본래 믿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옛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나 열린 믿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신약의 증언에도 사두개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제자중 도마같은 인물도 예수님의 육체부활을 믿지 못하였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만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의 수백만의 신자들이 과연 주님의 부활을 중심(重心)속에 믿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생활의 열매와는 대개 큰 거리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내 생활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사람은 허다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신자가 몇이나 될까? 이것이 의문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살아날 것까지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염원도 없이 슬픔에 잠기며 체념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성도가 자신의 부활을 못 믿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며 기독교의 진리도 죽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맞으며 개개인의 부활신앙을 확실히 발견해야 할 줄 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의미성이 끝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상징적, 실존주의적, 관념주의적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에서 여러가지 직분을 맡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큰 사업을 벌여놓는 하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을 망각하고 애쓰는 봉사는 모두 헛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부활을 전제한 주님의 죽으심에 기초한 신앙이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주님의 죽으심을 노래할 수 없고 죽으심이 없는 부활의 영광도 찬양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부활을 외면한(체면적으로 믿지못한) 입직, 봉사, 헌신 등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연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영을 체험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재성육신(Reincarnation)시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이 땅의 교회가 왜 무기력한가? 부활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낡은 전통에 젖고 현상유지의 타성에 빠진 지도자들에게서는 아무런 새로운 창작도 발전도 부흥도 기대될 수 없다. 거기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기주의적인 율법주의 권위주의만이 대두될 따름이다. 우리는 성탄행사처럼 부활행사를 음악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오늘의 부활절 행사는 어떤 것일까? 먼저 나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의 존재 유무에 대한 재검점이 있는 후에야 가난한 자들과 병들고 슬퍼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 세상을 향해 줄 것은 생명이다. 축제의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자에게 줄 것이 있다면 무엇을 주어야 하겠는가? 생명과 부활이 필요하다.

생명은 누구나 탐하고 부활은 누구나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명이시며 부활이신(요 5:29)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를 싫어한다. 열매를 좋아하면 그 나무도 좋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죽지 않은 생명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인생은 죽은자요 또 죽을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죽음에서 건져주러 오신 주님을 거절함은 멸망을 자취할 뿐이다. 부활의 주님을 모신 성도는 죽음을 문제를 해결해 놓은 최대의 행복자다. 그러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일생을 공포에 매여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음으로써 영광스런 부활체(復活體)로 바뀌 입어야 할 사람들임을 재인식할 것이다. <주산>

작은 나사못

교인들이 다 몰아간 교회당 안에 달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깊은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이 밤에 교회당 안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에 이번에는 풍금의 차례입니다.”

강대상의 말이 떨어지자 풍금은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이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을 위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군! 자, 우리 풍금을 위해서 박수...”

와글와글 박수 소리가 온 예배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에, 이번에는 헌금주머니의 차례입니다.”

강대상의 말이 떨어지자 강대상 헌금주머니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풍금의 딸같이 우리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과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헌금주머니는 말을 끝내고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교회 식구들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한 헌금주머니를 위해 박수하십시오.”

와글와글 박수소리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 때 교회당 뒤편 끝자리 구석에 작은 나사못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사못은 예배당 지붕 폭대기 함석에 박혀 있는 녹슬은 작은 나사못이었습니다. 나사못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자기같이 못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은 거 있으나 마나야.)

(나같이 못난 건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괜히 나와가지구 창피만 당하니...)

작은 나사못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교회당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회의는 끝나고

“여러분, 모두 우리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해 주신 데 대하여 예수님의 상급이 크실 겁니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맡은 일에 열심하십시오.”

이렇게 말들을 하며 다들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사못은

(나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인데 가면 무얼 해?)

그리고는 구석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이속해지자 그 밝던 달은 검은 구름에 가려버리고 무서운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함석 지붕은 바람에 덜컹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데는 다 튼튼한데 작은 나사못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그런 적마다 빗물이 그리로 새어들어 갔습니다. 밤새도록 새어들어간 빗물은 천장을 온통 적시고 마루 위에도, 강대상 위에도, 풍금 위에도, 헌금주머니 위에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장로님은 깜짝 놀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지붕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함석이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한 장로님은 한참만에 교회당 구석의 작은 나사못을 찾아다 함석 지붕을 고쳤습니다.

“이 나사못 하나 빠지는 바람에 교회당이 엉망이 되었구나. 이번에는 빠지지 못하게 튼튼히 박아 놓아야지.”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나사못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 이 예배처가 지금은 노동자들의 식당으로 쓰인다

나는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한의 모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리며 러시아의 공산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 앞에서 총살을 당하는 친구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

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인 학교에서는 총을 쏘며 수류탄을 던지는 군사훈련과 통신연락을 위한 모로스 부호 등을 가르쳤습니다.

17세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세례받은 지 6주일 후에 투옥되었고 「예수장이」라는 죄책으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나와 친구들을 끌고 나가 눈앞에서 친구들을 쏘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쏜 군인들이 나보고 친구의 시체를 물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시체를 묻은 나는 형무소로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나를 마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를 구둑발로 짊어지고 고무뿔뿔이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변을 싸서 나의 바지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형무소장은 연맥(燕麥) 두 구르마에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 선출하자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

“형무소장이 너를 팔았으니 이제는 형무소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느냐? 아

이 글은 지난 3월 13일 오후 4부 예배때에 소련에서 탈출한 다빈 클라센 목사의 신앙간증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김인숙 기자〉

무래도 너는 머리가 좀 돈모양이구나” 경찰은 이렇게 말하며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몸을 발가벗긴 채 늘 감시를 당하였습니다. 또 의사들이 “내 수탉이 이웃집에 가서 알을 낳면 그 알은 누구거냐?” “16kg의 쇠와 16kg의 양털은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 “단일 하얀 리본을 흑색에 담갔다 꺼내면 무슨 색이 되겠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나는 모두 올바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내가 정신병원으로 불러왔습니다. 의사들이 또 물기를 “네 남편이 집에서 집시를 집어 던지거나 아이들을 때리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베리아 형무소—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수용소

또 언젠가 나는 오그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간수들은 나를 바늘로 막 찌르고 불로 내 손을 지지고 담뱃불을 내 입에다 막 쑤셔넣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 그들은 나를 모스크바에서 동북쪽으로 5,000km 떨어진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미국 사람들이 마치 개나 원숭이를 실험하듯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4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나는 또 다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까지도 옷을 모두 벗기고 온 몸을 조사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둑장과 대변보는 변기까지 들춰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어서 입과 귀 또는 옷이나 구둑장에 숨겨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또 다시 나를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냈습니다.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면 처음에는 소금에 절인 쟈생선만을 먹입니다. 얼마 후에 목이 타서 물을 달라고 하면 막 욕만 합니다. 창밖의 눈이라도 한 주먹만 집어 달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건디가 못돼 철창에 붙은 성에라도 핏자 먹으려고 혀를 대면 혀 접질이 벗겨지며 피가 툭툭 떨어집니다. 영하 50~60도의 추위로 철창에 혀가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죄수(?)들에게 가장 간절한 희망은 어떻게 하든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일 외에도 우리가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하는 일이란 강제노동장에 끌려나가 강제노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곳에는 5,000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감시가 이만저만 엄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무장한 군인들과 훈련을 받은 개들이 우리를 쫓아보고 지켜보며 또 한쪽에는 탱크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유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형무소에서는 끝방같은 적은 방에서 면회를 하도록 허락했습니

공산세력의 교회말살 정책



다. 방에 들어서자 문을 닫으며 아내는 손가락을 입에 다 대고 말을 하지 말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 방 벽에는 도청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던 아내를 만난 나는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하고 방어리처럼 종이에도 연필로 글을 써서 묻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폭탄 저장소로 사용되고 성도들은 벌판에 서서 예배를 드려

소련에서는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또는 폐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공화국에서만 3년 동안에 7백개의 교회가 파괴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노어스피르스 크라는 곳에 있을 때 교회가 탱크 훈련장, 영화관, 폭탄 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완전히 부서져 버린 교회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레닌그라드의 어떤 교회들은 목욕탕, 공산당원의 도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모두 파괴되었거나 있다고 해도「더욱 더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라는 공산당원의 말대로 교회가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성도들은 흰눈이 덮인 벌판에 모여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형무소행(行)

또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는 방법이 잔인하고 다양합니다. 한 소련 장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17세의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크마라 니콜라이라는 사람은 불려가 혀를 뿔었습니다. 그리고 시뻘겋게 달군 쇠괴행으로 온몸을 찌르고 발바닥을 지켰습니다. 오펜스 크라는 사람은 목을 잘라 질식사한 후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다라는 한 여학생은 그 무서운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후 두번이나 옥에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어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어린이까지도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투옥된 아이들은 형제들이 한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불꽃이 흩어 놓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당장에 체포되어 형무소로 향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느 형무소에 있을 때 근처의 교회를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벽이 온통 사람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부인들이 기도하며 교회의 벽을 긁을 때 손끝에서 나온 피였습니다. 또 옴스크라는 곳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산당원이 소를 끌어다 도시의 극장 안에다 넣어두고 하룻밤을 지난 후 아침에 목사님 세분을 체포하여 극장으로 끌고 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혔지!” 하며

세분 목사님에게 각각 25년씩의 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방미터의 감방에 다섯 사람씩 세워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갖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성도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내 돈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사다리로는 닿지 않아

서구라파에서 한 성도가 소련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꼬리 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허름한 방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형제가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이 집회가 허락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뺄 뻔 했습니다. 서구라파에서 온 성도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제발리 그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의 긴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문안에 지켜서 긴 수염난 사람만 찾던 경찰은 허탕을 쳤습니다.

건물 안에서 집회를 열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지하교회가 경찰에 발각되면, 처음 경찰은 성도들의 찬송을 멈추게 하기 위해 자동차를 동원하여 요란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소방차를 불러다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흩어지지 않으면 창문으로 뛰어든 경찰은 여자들의 머리채를 걸러내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남자들은 쇠고랑을 채워 끌고 나갑니다. 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신랑·신부를 형무소로 끌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련의 성도들은 현금과 현물을 많이 하여 서로 도와주고 삽니다. 성도를 위해 현금을 많이 한 성도가 경찰에 끌려왔습니다. 경찰은 “내 돈이 다 어디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다리를 놓고 천정에 올라가 뒤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내 돈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사다리로는 닿지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련은 법으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와주면 3년동안 옥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련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산당의 온갖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옛 성도들 같이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의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

□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과 직업



이 준 교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 ◇ 이 글은 교회 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장래 신앙인 ◇
 ◇ 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조언이 되며 ◇
 ◇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지도에 말고 있는 지도교사의 ◇
 ◇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실었 ◇
 ◇ 습니다. <편집자> ◇

1. 올바른 직업관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다 귀한 것이다.

막스 웨버(Max Weber)가 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제3장 루터의 직업관이라는 곳에서 그는 이와같은 말을 하고 있다. 즉 인류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신의 자기 영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일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전대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 직업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또 직업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의무인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경작하다」(to cultivate) 또는 「일하다」(to work)라는 뜻을 지닌 말임은 잘 안다. 그러므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에덴동산에서 일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

2. 직업의 개념 및 종류

직업이란 말을 영어로는 「오큐페이션」(occupation) 또는 「소명」(calling)이란 점에서 이를 「보케이션」(vocation)이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사회적 노동을 형성하는 각 개인의 구체적 노동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직업은 이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수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신성한 과업이라 하겠다.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류해 놓은 것이 일정하지 않다.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종은 2,100여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노동청에서 조사한 국제표준직업분류에 보면 1,506종류이다. 그리고 한국인력개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분류 가능한 직종이 3,260종, 그외 유사직업명과 분류불가능한 직종까지 합하면 무려 10,00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3. 직업에 관계되는 정보

참고로, 직업에 관계되는 몇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14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인, 가정부인, 학생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 형무소 수감자 등은 이 통계숫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상황

(표 1) 단위: 1000명

한국통계청 1977년 2월호 / 경제기획원

연도	구분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총 수	경제 활동 인 구	비경제활동인구	이 경제활동인구				
1970		18,253	10,199	8,054	454	8.51	55.9	95.5	4.5
1971		18,984	10,542	8,442	476	8.442	55.5	95.5	4.5
1972		19,724	11,054	8,666	493	8.666	56.0	95.5	4.5
1973		20,435	11,500	8,838	461	8.838	56.8	96.0	4.0
1974		21,148	12,080	9,065	494	9.065	57.1	95.9	4.1
1975		21,833	12,340	9,483	580	9.483	56.5	95.9	4.1
1976		22,639	13,761	8,878	410	8.878	60.8	97.0	3.0

(표 2)

구분	연령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총	14세 이하	15~19세	20~24세	25세 이상			
연도	총	14세 이하	15~19세	20~24세	2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1971	3,494,300	1,769,300	1,575,600	193,700	1,725,000	50.6	89.1	10.9
1972	3,809,800	1,802,500	1,579,000	223,500	1,998,300	47.4	87.6	12.4
1973	3,892,800	1,802,300	1,659,300	203,000	2,030,500	47.8	89.1	10.9
1974	4,501,700	2,027,800	1,801,400	226,400	2,473,900	45.0	88.8	11.2
1975	4,752,040	2,247,800	1,998,370	195,760	2,504,240	47.3	88.9	11.1

위의 <표-2>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1975년말 현재 14세 이상의 인구 총수는 4,752,040명으로 그중에서 취업자의 수는 1,998,370명이다. 그리고 실업자의 수는 195,760명으로 취업률은 88.9%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을 학력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학력별 실업자 현황 (서울)

(표 3) 서울통계연보 제16호 (1976년) / 서울특별시

	계	비취학자	국립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75	195,760	7,000	45,200	43,200	78,500	19,800
%	100	3.58	23.12	23.09	40.10	10.11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실업자 195,760명 가운데 14세에서 19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42,000명이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실업자는 32,000명이 조금 못된다. 그리고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이들 가운데 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4>의 통계를 보면 금년도 대학졸업자의 총수는 45,316명이다. 그 중에서 진학한 사람이 모두 2,895명이며 그 가운데 762명이 여학생이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은 총 26,484명이며 그 중 7,652명이 여학생이다. 취업률은 전체의 약 58.4%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취업자들의 직업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10페이지 위의 <표-5>와 같다.

그리고 이들 취업자들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학교

의 추천으로 취업한 경우가 전체의 30.1%이고 채용시험을 거쳐서 취업한 사람이 46.6%로서 가장 많다. 친구 및 친지의 소개로 취업한 사람은 전체의 12.8%이며 실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은 경우가 3.2%, 기타가 7.9%를 나타나고 있다.

4. 직업 선택상의 유의점

직업을 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직업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또는 자녀나 후배의 직업선택을 지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 몇가지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① 직업 적성(vocational aptitudes)의 문제이다. 직업적성이란 일정한 직업교육·훈련·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혹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소질·체력·정신적능력·성격등을 말한다. 이와같은 개인의 내적 자아특성(self-traits)인 적성과 직업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에 높은 적성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을 아는 방법에는 표준화된 직업적성 검사를 하여 그 결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상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풍년향용씨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일에 종사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숙달하는 질과 양이 전체 종업원들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한 적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일에 대한 실수나 과오의 도가 전체

대학(교)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실태

(표 4)

서울통계연보 (1976년) / 서울특별시

구분	성립률				학 계 별										수상대학 학제	사 업 계
	합 계	국립	공립	사립	이문대학	세종대학	인문	사회	과학	세종대학	이 학 계	공 학 계	의약학계	농림학계		
총 인	45,316 (15,630)	14,871 (4,525)	109 (15)	30,336 (11,090)	3,095 (1,559)	2,583 (1,996)	1,809 (499)	9,009 (1,318)	630 (232)	3,594 (2,133)	7,616 (184)	3,560 (1,523)	2,373 (322)	467 (8)	10,625 (5,876)	
진 학 자	2,895 (762)	908 (107)	3 (3)	1,984 (652)	217 (101)	254 (190)	311 (44)	629 (74)	19 (16)	358 (134)	418 (8)	301 (67)	122 (21)	3 (-)	253 (107)	
취 업 자	26,484 (7,652)	7,902 (1,954)	66 (5)	18,516 (5,693)	1,810 (857)	1,281 (931)	1,201 (364)	5,696 (576)	528 (163)	2,005 (1,085)	4,930 (68)	2,510 (1,092)	1,362 (115)	372 (1)	4,787 (2,393)	
무 직 자	6,851 (4,638)	2,783 (1,581)	- (-)	4,052 (2,059)	418 (373)	710 (687)	75 (65)	935 (354)	32 (32)	594 (577)	541 (67)	239 (195)	108 (75)	28 (7)	3,173 (2,206)	
입 대 자	4,614 (-)	1,370 (-)	24 (-)	3,220 (-)	369 (-)	96 (-)	173 (-)	1,287 (-)	10 (-)	289 (-)	1,364 (-)	270 (-)	460 (-)	24 (-)	372 (-)	
사 업 자	4 (-)	- (-)	- (-)	4 (1)	1 (1)	- (-)	1 (-)	1 (-)	- (-)	- (-)	- (-)	- (-)	1 (-)	- (-)	- (-)	
미 상	4,408 (2,577)	1,908 (883)	16 (7)	2,560 (1,694)	280 (227)	197 (188)	48 (26)	461 (314)	41 (15)	348 (337)	465 (21)	239 (169)	323 (110)	40 (-)	2,028 (1,170)	
취업률%	58.4 (48.9)	53.1 (43.2)	60.6 (33.3)	61.0 (51.3)	58.5 (55.0)	45.6 (46.6)	66.4 (72.9)	63.2 (43.7)	83.8 (72.8)	55.8 (50.9)	64.7 (41.5)	70.5 (71.7)	57.4 (36.0)	79.6 (12.5)	45.1 (40.7)	

※ () 안은 여학생 숫자임

(표 5)

직종별	합계	학계			취업률 (평균)(%)
		국립	공립	사립	
합계	26,484 (7,632)	7,902 (1,954)	66 (5)	18,516 (5,693)	100
1 인문·기초직종사자	14,327 (5,802)	5,094 (1,830)	24 (4)	9,209 (3,948)	54.1 (75.8)
자연과학·공학기술자	1,542 (110)	639 (8)	4 (-)	899 (102)	5.8 (1.4)
의료종사자	1,894 (897)	751 (212)	11 (1)	1,132 (684)	7.2 (11.7)
경제학자	477 (39)	37 (3)	- (-)	440 (36)	1.8 (0.5)
법무종사자	305 (40)	37 (7)	- (-)	268 (33)	1.2 (0.5)
교직자(교원)	8,009 (3,878)	3,437 (1,529)	9 (3)	4,563 (2,346)	30.2 (59.7)
종교관계종사자	488 (117)	6 (4)	- (-)	482 (113)	1.8 (1.5)
기타	1,612 (721)	187 (87)	18 (-)	1,425 (634)	6.1 (9.5)
2 행정직종사자	1,443 (121)	284 (9)	- (-)	1,137 (111)	5.5 (1.6)
3 사무직종사자	3,624 (973)	541 (15)	22 (-)	3,065 (958)	13.7 (12.7)
4 판매직종사자	589 (70)	78 (8)	18 (-)	511 (62)	2.2 (0.9)
5 서비스직종사자	802 (353)	115 (32)	- (-)	687 (321)	3.0 (4.6)
6 농업·수산업종사자	423 (26)	165 (4)	- (-)	258 (22)	1.6 (0.4)
7 건설직종사자	2,349 (217)	470 (22)	2 (-)	1,877 (195)	8.9 (2.8)
8 문예·예술·체육직업	244 (82)	79 (6)	- (-)	165 (76)	0.9 (1.1)
9 군인	2,683 (8)	1,076 (8)	- (-)	1,607 (-)	10.1 (9.1)

() 안은 여학생 숫자임.

종업원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지 그 직무에 속하는 일에 관해서 해내는 능력의 차이가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등 이상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직무에 대한 적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응 역시 지능이나 성격과 마찬가지로 선천적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훈련·경험 등에 의해서 발달, 변화되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신체적 조건과 직업과의 관계이다. 신체적 불구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신체적 결함이 어떠한 직업에는 부적응하지만 어떠한 직업에는 적응되는 것도 있다. 예컨대 색맹인 신체적 결함자에게는 색채를 상세하게 구별하는 작업종 도안장식가, 의사, 교통중업원 등에는 부적응하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가지 예로 선천적인 발음장애자는 변호사, 교원, 아나운서, 안내원 등의 직업에 적당치 못하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③ 신앙과 직업의 문제이다. 불신자의 경우 대개 이상에서 언급한 직업적응의 문제나 신체적결함 또는 흥미등의 문제로 끝나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직업이 신앙양식에 거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나 하는 것 등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5. 신앙인으로 올바른 직업생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곧 바른 자아의식이 우선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아울러 자기 자신이 직장에 파송된 직장선교사(workshop missionary)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같은 자아의식과 자기의 직업에 대한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바른 직업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줄 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직장 안에서 자기를 신임을 얻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신임을 얻는 직장인,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상급자에게 아첨함으로써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자연스레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잠언 11장 3절의 교훈이나 고린도전서 4장 2절 등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된다.

6. 맺음말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최선의 사람이 되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이는 신성한 것이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직업의식이다.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말은 쉬우나 실상 이렇게 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나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

□ 특 별 □

심령 부흥회

일시/1977년 5월 9일~14일

장소/충현교회 본당

감사/정석홍 목사

※ 철야기도회-13일(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새로운 성전건축이라는 우리의 숙
원이 머지 않아 이뤄질 전망을 안
고 오는 5월 15일 특별건축헌금을
실시한다.

월간 총헌에서는 이 기회에 수년째 건축위원회 위원
장직을 맡고 계신 김기정 장로를 찾아 조선군 집사와
의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부>

건축위원장 에게서 들어보는 이야기

교회건물의 모습에 대하여는 온 교우들의 관심사인
동시에 교계(敎界)의 관심사인 것도 같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회장 김복사님과
우리 건축위원회 복안은 대에배시 3,500명 수용가능
을 목표로 성전 본당은 900명을 3층으로 하여 2,700
명으로, 교육관은 400명에 5층을 올려 2,000명으로
또한 선교센터 및 종합사무실은 150명에 건평 12층
1,800명, 기타 부속건물 등 총 6,000명 내외를 구상
중이다. 물론 주차장도 만들게 될 것이다.

조⇒새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모든
교우들이 알 수 있게 이해시킨 뒤에 협력을 호소하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또 모든 설계를 구체화시키기 전에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참작할 생각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
니다.

위원장⇒원간총헌 3월호의 「교회건물의 기능과 내용」
이란 글, 편집부가 제시한 의견에 감사한다. 훌륭한
교회 건물을 위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면서, 계속 건설적인 참
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혹 우리가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살리다 보면 다른, 한쪽은 더러 희생되는



◇ 새 성전건축에 온 교우들이 하나로 뭉쳐
전력을 기울이자고 말하는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경우가 있을 수도 있
지 않겠는가. 모든 일
이 여의하게 되어 가급
적 속히 설계도를 보
여주고 싶은데 워낙
방대한 건축이고 보니
얼마간의 시일이 요구
된다. 끝나는 데로 설
계개요를 교우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으며, 그
설계를 최후로 확정짓
기 전에 공개할 방침
도 세워보겠다.

조⇒우리 교회로서는 정
말 일대 역사적인 전
환점을 이룰 이같은
성전건축의 막중한 책
임을 지신 위원장께서
성전건축을 앞두고 총
헌의 모든 식구들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으시
면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장⇒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실무
를 위해 세우신 여러
종들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20여년 전 오늘의 총
헌교회를 세운 초창
기 성도들의 열심, 물
불 안가린 그 열정을
총헌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발휘해 주
었으면 싶다. 하나로
뭉쳐 전능하신 하나님
께 기도하자고 호소하
고 싶다. 당회장이 말
씀하시듯 앞으로 교우
들 각자가 자기 재산
의 십분의 일을 드릴
자요, 그런 정성만 갖
는다면 무엇이 두려우
며 무슨 어려움이 있
겠는가. (※)

매일 기도합니다!

• 먼저, 시당국이 속
히 건축허가를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 또 5월 15일에 있
을 성전건축헌금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조⇒배장소가 좁아 지
난 3월부터는 4부에
배를 실시해야 될 만
큼 문제가 날로 심각
해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
원장님은 왜 성전건축
이 하루라도 빨리 이
뤄지지 않으면 안되겠
는지 좀 말씀해 주시
시오.

위원장⇒교인수가 계속
증가하여 4부에배까
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우선 감사해야 된다.
어떻든 예배장소문제
는 겨우 숨을 돌린 줄
알았는데 4부에배로
인하여 각지회의 활동
이 위축되고 있으니,
계속 문제를 안고 있
다. 지금 교육관 사정
은 심각한 어려움이란
말을 넘어 「비참한 지
경」란 표현이 어울릴
것만 같다. 한 마디로
새로운 성전건축이 다
급해진 상태이다.

조⇒그러면, 강남구 논
현동에 이미 마련해놓
은 성전건축대지에 지
을 성전건축계획은 현
제 어느 정도 진행중
이며, 계획진행에 당
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장⇒꽤 급급한 것이
다. 다 아는 대로 성
전건축은 시당국의 행
정적 조치로 지연되어
왔는데, 근간 시당국
책임자의 양해를 얻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은 착수해
도 될 만큼 문제가 아
주 해결된 것은 아니
므로 백방으로 노력하
고 있다.

조⇒현재 구상중인 새로
운 성전은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날 것인지,
건물의 종류와 내부시
설 등 전체적인 배치
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충현주교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최 정 만

<대학부 교사>

<목 차>

1. (서언) 미래를 향한 충현주일학교의 위치정립을 위하여
2.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
4. 주일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및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위하여
- 가. 신학적 원리 나. 역사적 원리
5. (결언) 바람직한 교회교육으로의 제언

3.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주일학교 교육이 지향할 기본적인 방향 또는 지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의 모든 조직·운영·활동은 이 목적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육성하는 데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주일학교 교육목적은 「일반목적」과 「특수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후자는 특수환경에서 일반목적의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다. 초등부, 대학부 교육의 구체적인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본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77.3.20) 「충현교회 주일학교 운영안」에 잘 반영되어 있기에 본고(本稿)에서는 주일학교 교육의 「일반목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지적·정서적·신체적 조화있는 발달을 통하여 유능한 인간을 형성하려는 설계도」라 한다면,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평소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성서적인 인간상 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전통의 보존자나 상속자로 보던 봉건사회의 교육은 인간을 기존가치에로 예속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주교나 가톨릭으로 보지 않고, 과거로부터 보존되어 온 전통, 교리를 이어나갈 문화의 수호자로 보았다. 따라서 내용 전달, 암기법, 복종, 주입식방법을 쓰는 것이 상례였다. 계몽주의 이후의 교육은 주로 전통 혹은 인위적인 테두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자연으로 돌아가게 했던 일본주의 교육을 외친 북소는 「에밀」에서 가장 최고의 인간상은 자연과의 합일(合一)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이 인간을 가르치는 사회의 제도적 교육이 제거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히피운동은 일본주의의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공업화된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은 「신앙」이나 「윤리」나 「선」이 아니라 바로 「기술」이라고 단정하고 모든 교육에서 기술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음이 세계 여러나라의 공통적인 교육현상이자 실정이다.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은 역센 힘으로 등장한 기술교육과의 대결 내지는 새로운 대화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은 기술교육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즉 기술인 양성을 통한 인간 복지사회의 건설)을 인정하면서 기술만으로서의 인간사회에 천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기술교육의 한계점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종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상서에 근거한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주제 즉 성서적 인간상 수립을 목적으로 ① 잃어버린 양을 찾고(눅 15:3), ②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딤후 3:17) 하며, ③ 타락된 사회와 복음전리 파수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딤후 2:5) 힘있는 행동인, 그리스도인, 천국일꾼을 길러내는 데 교육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주일학교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및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가. 신학적 원리

공산주의는 물질이 균등하게 분배되면 이상천국이 온다고 믿어 경제체제를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하며, 민주주의는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균등하게 하는 사회가 곧 이상천국이라 믿어 정치체제를 교육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대는 과학과 기술이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교육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일익(一翼)을 담당하는 주일학교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면 정치·경제·과학시대에 걸맞은 파괴력이든 보다는 화해와 공정한 사회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복음은 이 모든 것의 종합이며 완성인 것이다. 과거의 기독교 교육은 「복음」을 핑계로 복음이란 즉 글자암송 내지는 교리중심의 주입식교육, 인간의 관계 밖에 있는 초월적 진리를 무시한 경험위주의 교육,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만남」을 교육내용으로 하지 않고 인간 예수의 도덕적 행위를 교훈으로

로 모방하는 등의 제 2차적인 것들을 마치 복음인양 가르쳐 왔다고, 제임스 스마트, 알렌모아, 캠블와이코프 같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되며, 성서를 문맥 없는 문자적 나열로 교육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떠한 관계로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이 삼자관계가 기독교교육의 『내용구조』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교사의 살아 있는 언어와 창조적인 교수행위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또 교회교육 내용의 핵심은 성서이며 이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경연의 매개일 뿐 아니라 신앙의 규범인 까닭에 성서는 모든 교육적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것이다. 성서를 내용으로 가르칠 때는 그 『내용구조』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 환언하면,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성서를 학습자들의 이해 및 『삶의 문제』와 연결지워 가르칠 때 그 내용구조(신학적 이해)는 그들의 삶의 문제(심리적 이해)속에 자극과 호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인식론에서는 인간의 정신기능인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만이 사물의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교육이 실재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성작용, 주리작용, 비판작용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보아왔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입장은 궁극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인식은 이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신앙』만으로(sola fide) 가능하다고 본다. 넬스 페레(Nels F.S. Ferre)는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진리와 실체”라고 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을 교육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 역사적 원리

과거의 역사적인 반성에서 교회교육의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독일의 전국 시장들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청소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묘사했다(시 78편). 그는 또, “한 도시의 최선, 최고의 복지와 안전과 힘은 그 도시 안에 있는 다수의 유능하고 배운 지혜롭고 명예로운, 그리고 품행이 단정한 시민들로 구성된다”라고 유능한 시민양성을 강조하고, 모국어와 사용된 종교교육을 위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국민교육에 이바지했으며, 국민개학(皆學)을 주장했고, 음악교육을 강조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비록 고전적 인문주의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더 높은 지식보다는 열등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도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멀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교도 저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저서 속에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빛에서 배우도록 하자. 인간의 마음은 타락되어 있으나 하나님에 의해 탁월한 재능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했다. 학생은 5, 6세의 어린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예술과 문학에

거대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이상으로 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인구의 확장, 부도덕한 사회생활, 그리고 무식 등이 사회적 조건들을 악화시켰었다. 그래서 신 교육 개척자들은 자선교육 운동을 전개시켜, 자선학교, 주일학교, 유년학교 그리고 선임교사(Monitorial Systems)등이 나타났다. 영국에서 자선교육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주일학교가 오늘날 전 세계 신교 자교과의 중요한 교육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선교교육에서 출발한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계몽운동을 통한 근대화 교육이었고, 일제에 항거한 민족교육이었으며, 성경중심 교육이었다. 선교사 막안턴박사는 성경중심적인 교육이 네비우스원리(Nevius plan)를 실천하는 데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교육의 전통인 가정교육, 시민교육, 자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에 힘써서 자선교육의 현대적 의미인 교육선교의 방향으로 매진해야 할 때가 왔다.

5. 바람직한 교회교육으로의 제언(결언)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의 전체적 관심사라기 보다는 몇몇 열심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봉사를 위해 내버려진 『일터』가 된 느낌이 든다. 1967년 8월 18일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 실린 한 통계를 인용하면 유년주일학교에서 교육받은 어린이 125명중 어른이 되어서 교회교인으로 남아 있는 수는 1명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젊은이들의 반항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교회에서의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던 말인가? 교회가 성서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 사이에 아무런 연결도 변화의 사건도 찾아주지 못하고, 성서의 문자적 알기위주의 교육에만 집착하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까?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일반사회교육에 앞서 이를 이끌어 갔음에 반해, 오늘날의 현실은 일반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에 비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계의 비판의 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교사의 질적인 저하, 수적인 절대부족, 시설의 부족, 교재의 결핍, 교사의 계속적인 훈련의 문제 등은 한국교회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좁은 교회건물 내에서 마치 시장분위기를 방불케 하는 떠들석하는 환경은 피교육자들의 정서에 매우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육은 꼭 교회에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근의 기존학교시설을 빌어서 쓴다면, 충분한 시청각 교육과 음악, 미술 등의 예능교육과, 체육교육도 폭넓게 그리고 흥미있게 교육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주일학교교능이 주일날에만 끝나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가정과 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커리큘럼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역한이다. 교회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를 한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지전향상을 위해서도 단기보수훈련의 강화 및 전문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배치, 교직원구동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7호 죄수—이기풍 목사(상)

이 사 례 권사

<고 이기풍 목사 막내딸>

“에 살래야! 너 왜 이 험한 꼴을 보려고 이곳까지 들어왔니?” 나를 찌안고 내 볼을 비비며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다. 「살래」는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쓰시는 애칭이고 이곳이라는 곳은 여수경찰서 지하실 바로 위에 있는 취조실을 말한다.

순천노회 목사 일제검거사건은 일제종교 탄압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수난사라고 말할 수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철이 들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불시에 급습하는 일본 경찰의 가택수사 때문에 어린 나의 마음은 항상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 순천노회일제검거가 있기 전, 내가 어학교 졸업반 때 즐거운 겨울방학이 되어 아버지의 개척지인 머나먼 여수(麗水)의 남단 우학리섬에 배타고 갔다.

약 1주일이 지난 이른 새벽 갑자기 두들기는 문소리와 함께 무조건 방안으로 뛰어들어 와서 급하게 이것저것을 뒤지기 시작한다. 나는 기겁을 하여 구석저에 찔러 붙어 선 채 부들부들 떨며 왜경들의 거동만을 살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네들의 하는 행동에 아랑곳없이 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만 하고 계셨다. 기도가 끝난 아버지는 내일자약하셨다.

두 왜경은 벽장속에 있는 책·문서·선교집 그리고 내가 기숙사에서 보낸 편지까지도 무슨 큰 불문문서나 발견이 된 것같이 자기들이 가져온 가방속에 마구 집어넣는다. 마지막으로 장롱으로 손이 갔다. 차곡차곡 꾸며서 정리해 놓아 둔 헝겊가방들이 마구 방바닥에서 나뒹군다. 한참 집어내다가 맨 밑바닥에서 백원짜리 지폐 한장이 나왔다. 뚱뚱한 왜경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켜진다. “고노야로—고노 오가비와 아메리카잔가 구레다 스파이노 시킨다로!” (이세끼야 이 돈은 아메리카 사람이 준 스파이 자금이지) 생뚱맞은 억지를 쓰다가 오른쪽 포켓에 쪽 집어넣어 버린다.

나는 평생동안 그 때 슬프고 억울했던 그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돈은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이화전문학교에 보내려고 모았던 생명과 같은 학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이 날 역시 억울하게 왜놈들의 밧줄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셨다. 그 날은 마치 바람이 불어 풍량이 심했다. 선창가에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땀비나 쓰러지셨다. 나는 왜경에게 매달려 아버지를 친척히 끌고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73세였고 나는 17살이었다.

내가 5살 때 제주도 성안교회에서 아버지께 환갑잔치를 지냈다. 벽을 입에 물고 기어다니는 나를 안고 짐사님들이 가웠다고 울던 일들도 잊고제와도 같다. 나는 항상 늙으신 아버지의 어깨 밑에 들어가서 지팽이 노릇을 했다. 아버지와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아이가 손녀요?”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인 서글웠다.



◇ 제10대 총회장 때 (1921년)의 이기풍목사

오늘 역시 왜경에게 끌려가시는 아버지를 부축하려다가 사정없이 나를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길바닥에 굴러떨어져 버렸다. 왜경들은 계속 아버지를 질질끌고 갔다. 아버지를 경비정에 집어넣을 때는 흰하게 먼동이 났다. 톱톱 거리며 떠나가는 경비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다.

내가 졸업한 후 나는 순천지구에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음악원에 피아노교사로 임명을 받아 봉사를 했다. 나는 이시절 어느 집

사님덕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음력일이 지난 추운 겨울 새벽 2시에 난데없는 왜경들이 나의 숙소를 급습했다. 어린 때 항상 당하는 일이라지만 내가 있는 숙소에까지 뒤져터오리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날 새벽을 기하여 순천노회 산하 중요 목사님들 17명이 일제검거를 당했다. 이날 새벽 아버지는 여수경찰서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객지에서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나의 처지였다.

어린 마을에 순천 세일교회에 시무하시는 김장로님 덕에 가서 의논할 생각이 들었다. 김장로님은 두말도 하지 않고 장로님의 새 명주 솜바지와 저고리를 싸주셨다. 나는 이 귀한 선물을 찌안고 여수경찰서로 달려갔다. 여수경찰서의 주변에는 갑자기 검거된 목사가족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천하없는 사람이 와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천칙을 내걸고 경찰서 문 가까이만 접근해도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이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혀가신 후 우학리섬에서 침착하게 교회를 지키시며 계속 금식기도하신다는 소식만 전해들었다.

아버지의 죄는 세가지였다. 첫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로 불경죄로 몰렸고, 둘째는 미국 선교사들과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셋째로 금지된 목시록만을 주체로 강해하셨기 때문에 일본정부를 비난했다는 무서운 죄를 씌워 거물급 죄인취급을 받게 되었다. 나는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 바싹 다가 자리잡고 앉아 아버지를 한바탕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열흘째되는 날 아침 똑같은 말로 출라했다. “우루사이나 마다 기다까”(키잡다 또 왔구나). 부리부리한 눈알을 굴리며 어제와 같은 호통을 친다.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의 솜옷을 안고 우뚝하니 앉아있는 나를 누가 톡하고 친다. “야 일어나. 네 아버지 죄는 중하지만 네가 하는 것이 불쌍해서 특별히 너만 들어오게 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다음호에 계속)

그리스도의 속죄 · 부활 · 재림을 부인

윤 형철 전도사

〈중등부지도 · 종신연구원 3년〉

1. 「여호와 증인」의 명칭

「여호와 증인」(Jehovah's witnesses)이란 명칭은 1931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보스에서 개최된 회원국들의 국제대회에서 당시 회장인 루터포드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칭호다. 그 이전에는 러셀파(Russelites), 천년기 새벽파(Millennial Dawnites), 루터포드파(Rutherfordites), 혹은 「성경연구모임」이라 칭했다. 「여호와 증인」이란 명칭은 이사야 43장 10, 12절과 44장 8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란 말씀을 인용하여 붙이게 된 것으로 1931년 이후부터 「여호와 증인」이란 명칭이 그들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2. 여호와 증인의 지도자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는 찰스 테즈러셀(Charles Taze Russell; 1852~1916)이다. 그는 1852년 2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알레게니(Allegheny)에서 전통적인 장로교인 가정에 출생했다. 그러나 러셀은 장로교회 교리에 회의를 느껴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의 교인이 되었다. 결국에는 기독교의 행정 및 교리에 회의를 느껴 1872년 같은 마음을 가진 추종자들과 함께 그를 형성하여 특별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여호와 증인의 창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룹은 1884년 「시온의 파수대 전도자협회」라는 명칭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정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길르앗 파수대 성서학교」를 세워 여호와 증인의 정예분자를 양성했다.

3. 그리스도에 관한 그릇된 해석들

1) 그리스도의 품위

여호와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으며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적 피조물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아니라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 “예수는 육신으로 탄생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신령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인간으로서 탄생하였고, 무형한 영적 존재가 육신을 쓰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육신뿐이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는 단순히 사람이었으나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에수를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아들로 삼으셨고, 그렇게 영으로 거듭나심을 받으심으로 에수는 메시아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그는 인간으로서는 끝나서 아주 없어지셨고 그때에 영적 피조물 미가엘이 그의 존재를 다시 취해서 더욱 존귀한 자리에 높임을 받았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전과 후에는 최고의 영적 피조물이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결코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3위 1체를 부인한다.

2) 그리스도의 속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가엘에게 부탁하여 그를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공로로 원죄는 모두 속량함을 받고 에덴동산에서 소유했던 인간의 완전함을 사명이 없는 천년 왕국시대에 되찾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리스도가 아무나 속죄하여 영생을 주시지는 않는다. 사람은 선과 악을 자의에 의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영생을 얻고 못 얻는 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생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3) 그리스도의 부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불멸의 영적 아들로 부활시켰다고 말한다. 인간 예수는 영원히 죽었고, “단지 영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찌되었는가?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몸은 초자연적으로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것이 기계체에 용해되었는지, 썩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커다란 기념무로서 어느 한구석에 보존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변한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몸은 그가 나무에 못박혔을 때의 몸이 아니요 다만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살과 피의 형체를 자신에게 입힌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4) 그리스도의 재림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므로 당연히 육체적, 가시적 재림도 부정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 육체를 갖지 않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1914년에 이미 재림하였다고 믿는다.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시드기야왕을 폐위시킨 연대를 주전 607년으로 간주하여 이 때를 여호와 지상 왕국의 끝으로 본다. 그리고 계 12:6의 “1260일”과 14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동일시하며 단 4:25-26의 “일곱때”를 3년반의 두배로 생각하고 그 날을 2,520일로 여긴다. 그리고 계 4:6의 “1일이 1년”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2520년으로 계산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 재림의 날짜를 1914년으로 말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여호와 왕국의 시작으로 부는 것이다.

1700자 전후

타인들의 이야기일까?

오 태 용

요즘에 알려지기 시작한 저술가 코리텐 봄(Corrie Ten Boom)여사가 시계점을 경영하는 아버지를 돕던 때 겪은 이야기 한 토막——한번은 크나큰 재정적 위기——값비싼 시계 1개만 팔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에 부딪혔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신사 한 분이 들어와 가장 비싼 시계를 고르더니 현찰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작업실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코리여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때 새로 산 시계를 바라보던 신사는 뭔가가 충족된 듯한 어조로 말하기를 사실은 훌륭한 단골 시계사가 있었는데 그가 죽자, 아들이 업을 이어받았지만 그에게서 산 시계가 고장이 생겼는 데도 여러 차례나 고치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텐 봄씨는 그의 고장난 시계를 받아서 뭔가를 조정할 뉘 돌려주면서 “이제는 그 시계가 잘 갈 것이니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오. 여기 돈이 있으니 내 시계를 다시 돌려주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그 젊은이와 거래를 해 주십시오. 그도 언젠가는 아버지만큼 훌륭한 시계사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를 정중히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코리 여사는 울상이 되어 아버지를 원망하니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많은 사람들에겐 그리스도를 증거해 온 내가 어떻게 남의 단골손님을 뺏을 수 있느냐? 그 젊은이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니? 과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겠느냐? 돈 문제는 주님이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 한 토막의 이야기——이북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는 여러가지로 무능하다는 세평이었는데 하루는 전갈이 오기를 목사님의 아들이 차에 치워 죽었다는 것이다. 이윽고 사색이 된 젊은이가 끌려오자 목사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인자한 음성으로 “젊은이,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 말게. 나는 자네를 진심으로 용서하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미리 데려가시기 위해 자네의 손을 감시 빌렸을 따름이라네 자, 그만 돌아가게”라고 말하였다. 그 때부터 그는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빛에 쫓돌리는 가난한 시계사일망정, 그리고 유능하지 못한 시골 목사일망정 그분들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아주 원색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 먼저 내 입장부터 살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던져 객체의 마음을 먼저 맛보고 그것을 내가 담당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해 삼켜 버리는 그 아름답고 차원 높은 사랑——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강단과 생활의 거리가 하도 먼 요즘 세대이다.

찬송가 해설 ⑮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The Old Rugged Cross)

(새 154; 개 118; 합 128)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일세
협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것네

무엇이 거기서는 일어나고 있었는가? 해도 차마 밝은 채론 있을 수 없어 갈보리 언덕을 캄캄하게 가리웠던 그 십자가의 고난. 이를 행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찬송의 작자인 조지 베나드 목사(Rev. George Bennard)는 1873년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16세 때 부친의 사망으로 부양책임자가 되어 목회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도 그는 틈틈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준비했다. 그후 구세군 사관 교육을 받고 구세군 군단의 한 여단 책임자로 있다 감리교로 전향, 부흥전도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면서 총 300편이 넘는 찬송을 작시 작곡했는데 1913년에 완성된 이 찬송의 작시 작곡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는 하나의 상징 이상으로 여겨졌고, 그 광경은 한 방법을 묘사했고, 한 과정을 요약했으며, 영적 경험의 완성을 드러냈다. 그것은 성경말씀(요3:16)이 형성을 이뤄 구속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마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중에 찬송의 제목이 나타났고 곡이 나타났는데 다만 제목의 말씀만 나타났을 뿐 다음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후 미시간주에서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도시의 내용은 떠오르질 않았고, 뉴욕주에서 전도집회를 수차 인도한 후 그 다음 주 또 다시 시의 내용을 생각했으나 여전히 되질 않았다. 미시간주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 많은 은혜의 경험은 모든 장애물을 허물고 시의 홍수문이 열려 나는 용이하고 민활하게 시를 완성할 수 있었고 친구 한 사람이 그 시를 원고지에 삽입하는 데 도와줬다.”

그가 부흥집회 기간 중, 목사관에서 이 곡을 완성한 뒤 담임목사에게 자기가 한 시를 작곡했으니 들어보라고 하면서 늘 치던 기타반주로 불렀다. 목사가 찬송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멸의 곡을 허락하셨군요. 다른 데서 얻지 못한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프린트하기를 요청하여 그 교회에 처음으로 이 찬송이 소개되었다. 이 교회에선 “협한 십자가의 날”이 해마다 지켜져 내려오고 성도들의 입을 통한 파급은 시카고 대집회 뿐 아니라 미국이란 테두리를 벗어나 “이 찬송가로부터 소식을 들을 것이요” 할 정도로 널리 전해졌다.

□ 3월에 구입한 책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함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3월에 구입한 책

- 능력있는 기도/라이스 존 R/생명의말씀사
- 주님 향해 뛰어들라/크루즈 닉키/보이스사
- 귀중한 당신의 삶을 위하여/마셜/카다린/보이스사
- 골짜기의 샘물/카우만칼스/보이스사
- 위대한 순교자들/폭스 존/보이스사
- 기독교 생명론/최동진/한국성서협회
- 정치신학의 논리와 형태/홍지영/금란출판사
- 신약학서설/총신대학 출판부/총신대학
- 탈무드/토케어 마빈/퀸클리야사
- 한국의태어사전/배양서/탐출판사
- 참된 고백/워워만 니/생명의 말씀사
- 모이기를 힘써라/워워만 니/생명의 말씀사
-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워워만 니/생명의 말씀사
- 완전한 기쁨/물간 마라텔/보이스사
- 완전한 부부생활/위이즈, 베나드 R/보이스사
- 한국의 신흥종교/탁명환/신흥종교문제연구소
- 중생의 빛/정재호/중생회

□ 간직하고 있는 책

- 전도자의 아내/C.K. 도자 부인/침례회출판부
- 그리스도인과 헌금/V.S. 마자리아/대한기독교서회
- 로마교리와 성경교리/알렉산더 스튜어트/한국개혁 신학회
- 복음이란 무엇인가/김홍진/한국복음문서협회
- 크리스찬의 자유/말턴 루터/퀸클리야사
- 속죄의 조직과 관리/이봉구공저/총리원교육국
- R.E.S. 광경신학/이상찬
- 창세기강해/C.H.M./생명의 말씀사
- 한국교회의 나아갈길/고영근/한명문화사
- 교의 신학/박형용/백학출판사
- 빌리그래함전집/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신경사
- 이성에서 도피/프란시스 A. 웨퍼/서광문화사
- 히브리서 새주석/R. 밀리건/참빛사
- 기도의 능력/E.M. 바운즈/생명의 말씀사
- 칼빈신학서주해/칼빈저작집간행회/세종문화사
- 누가복음/채위/대한기독교서회
- 종합사복음연구/강태국/일립사
- 사도행전 새주석/J.W. Mc Garvey/참빛사
- 종교심리학/L.W. 그렌스밋드/세종문화사
- 신에게 출직이/존 로빈슨/대한기독교서회
-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강지봉/신학지남사
- 교회사/이종기편집/세종문화사
- 출애굽기강해/C.H. 매킨도쉬/생명의 말씀사
- 신학서론/박창목
- 성서주해(전 9권)/村鑑三/혜문사
- 신약성서주해/黑崎幸吉/제일출판사
- 한국기독교100년(전6권)/박완/선문출판사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테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박 종 구 권

스퍼전 목사의 생애

신망애출판사 발행
4·6판 332면 값 1,700원

세계 3대 설교가 중의 한 사람인 이 스퍼전 목사는 복회에도 크게 성공한 목사이다. 그의 설교와 출판 일화는 일반 신자들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바가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나 눈보라가 치던 날 감리교회에서 중생하였고, 침례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잔디밭을 거닐면서 첫사랑의 고백을 하였고, 16세 때 원고 없이 첫 설교를 했으며, 처음 목회시 20명의 교회에서 나중엔 6,000명의 대교회로 부흥시킨, 또한 기도로 이룩한 대성전 건축의 역사 등, 그의 복회비결이 감동깊게 소개되고 있다.

끊임없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충성스런 집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방대한 저술사역을 걸었던 그의 생애는 신앙에의 강렬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 17월계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대학을 포기하고 농촌목회로 출발했던 그는 무디 선생, 조지 뮐러, 윌리엄스,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 위대한 사역자였다.

32년의 사진화보와 스퍼전 부인이 쓴 남편의 생활, 아들이 쓴 아버지의 추억, 스퍼전 목사의 일기와 편지문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서 흥미있게 읽을 수 있고 부담이 가지 않는다. 위대한 사기꾼이란 중상모략을 의지로 극복했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운 그의 생애가 소박하면서도 진지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선근 집사<월간중현 편집위원>

중동선교의 전초지로 이집트를

- ◇... 따뜻한 봄벌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해외선교 활동에도 새로운 활기가 일고 있다. 가...◇
 ◇...장 관심의 쫓김이 되는 중동 선교의 문이 전보다 더욱 활짝 열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을 기뻐하기에 앞서 많은 기도가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항상 긴장해...◇
 ◇...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해외선교에 대한 최근의 소식을 들어본다. <편집자>...◇

중동—이집트에 체류 가능

충현 성도님들의 끊임 없으신 기도와 후원으로 중동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을 놓는 귀한 주님의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기억하시고 더욱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예정대로 3월 9일 태국의 수도 방콕을 출발하여 파키스탄의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3박을 한 후, 3월 12일 이른 아침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2) 이집트의 정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① 이집트 지교회들 보증을 한 선교활동의 길이 있기는 하며 또 관광비자라도 1년 이상 장기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처리할까 합니다.

② 이곳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 아랍어학과가 있어 외국인에게 언어훈련과정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입학하여 학생비자로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학시험을 치루고자 하니 특히 기도의 부락을 드립니다.

③ 또 이곳에 한국 회사가 여럿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해도 장기체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이곳 이집트에 정착하도록 마음을 정하고 모든 수속문제나 비자문제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종교활동에 공식적인 제제는 없고 모든 종교의 종파가 자유로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적당한 때에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를 설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사관, 무역상사, 토건회사의 직원들 외에 유학생 기타 한인들까지 합치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있는 셈입니다.

4) 이전 판 얘기입니다만 파키스탄에 들렀을 때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세한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는 나라이니 의사, 간호원, 사회사업, 농촌개발을 위한 지도 등등의 기술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제가 아직 정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선교와 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제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이 연 호

서독—인도하심 따라 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선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문헨으로 김영한 박사, 박용삼 집사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소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갈급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21일(월)에는 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올라가 박용삼 집사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였고 본교회 김성택 집사 자제인 김광려 집사(전 초등부교사)를 심방하고 여러 간호원과 같이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기도를 부탁드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한인교회 교인인 김복심 자매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중상으로 사경(死境)을 헤매고 있어 은 교우들이 특별기도회를 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리와 갈비뼈 3개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찢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도 이역만리에서 죽을 직전에 있는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 육 호 기

인도네시아—각별한 기도를

오는 5월 인도네시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 종교 문제 등으로 정국이 몹시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특히 회교 청년행동대의 거사모의가 최근 탄로되어 일부 검거되었습니다. 선교사와 능력있는 목사들이 공격의 제일 목표였습니다. 온 성도는 각별히 명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저희 선교관이 그들의 비밀 훈련장 지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화염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 서 만 수

구역소식

축하합니다(3월중 결혼)

- 임낙규군/임광식장로, 노영숙권사 2남-8일 영빈관
- 이경애양/유치부교사-12일 오후 3시 도류호텔
- 김영록군·박애희양/중등부교사·유치부교사-16일 충현교회
- 김인석군/집사, 유년부교사-22일 Y.M.C.A. 강당
- 김인양/유치부교사-26일 기독교대화관
- 나영철군/김택선집사아들-26일 서울예식장
- 조영임양/중등부교사-29일 충현교회
- 최학상군/김정환집사아들-31일 충현교회
- 천요상군/화곡구역-5일 아카데미하우스
- 김하우군/혹석구역-5일 프레지던트호텔
- 김미숙양/장위구역-10일 오복예식장
- 이인관군/면목구역-17일 충현교회
- 최낙성군/잠실구역-14일 수도예식장

위로드립니다(3월중 별세)

- 조병윤/김후진집사 부군-11일
- 김순옥/전금자집사 친모-13일
- 김은득/미아리구역-29일
- 오완영/회현구역-30일
- 이한조/율지구역-31일
- 박확실/청구구역-31일

해외이주가족(3월중)

- 윤지성/불광구역-16일 미국

알림

- 매월 첫주 금요일은 교회에서 철야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 성전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장소문제가 원만치 못하여 주일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건축을 위하여 오는 5월 15일(세째 주일) 특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루 속히 성전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 인도네시아 국내의 불안한 정치사정으로 선교사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혼잡한 국제도시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중시하고 활발한 선교사업들을 펴고 있는 홍콩만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중동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지난 3월 9일 태국을 떠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여러가지 준비로 애쓰고 있는 이연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독일의 육고기 선교사는 한인 교인중 교통사고로 사경(死境)을 헤매고 있는 자매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왔습니다.
- 또한 일본의 유병세,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평신도 선교사를 위하여도 매일 기도합시다.

구역장 노우트⑮

신앙지도의 지침(7)

백성통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3) 가족과 친척문제

① 부모를 섬기는 일(엢6:1-3)

성경에는 불효자에 대하여 무서운 저주의 말씀으로 엄히 경계하고 있다(창30:17). 노아의 아들 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실례가 된다(창9:20-27).

부모님께서 잘못하셨더라도 공손히 간하며(설명하여 일러드리며)기도할 것이요 책망조의 불온한 언동을 결코 해서는 안되겠다. 항상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님과 한집에 같이 지내지 않는 경우라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문안드리고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 같이 부모님 생전에 정성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유혼을 세기며 유덕을 기리며 유지를 받들어 자녀들에게 부모님 섬기는 일에 행동으로 본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불신자를 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제사가 고인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며 주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므로 이를 금하는 것이다.

② 자녀를 양육하는 일(엢6:4, 딤후5:4)

7. 자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태아, 영아, 유아, 사춘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성격형성 과정에 있어서나 신체적인 발육과정에 이르는 변화까지도 살피면서 키워야 한다(눅1:41, 삿13:12-14, 딤후1:5).

나. 편견, 편애 없이 부모는 일치성 있는 교훈을 해야 한다——이삭의 가정에 싹트던 불행의 씨앗은 두아들을 두고도 한 아들만을 편애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창27:). 외아들로 자랐다고 자기 아들만 귀한것 처럼 편견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업수이 여기면 교만한 자식을 키우게 되고 또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만한 일군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다. 항상 성경적이거나 하며 빠르게 해석되는 것이어야 한다——육아법과 교육방법을 학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지만 아직도 미개발 분야가 많다.

라.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라.

마. 일하는 즐거움을 배워주고 의타심을 버리게 하라.

바. 가정, 교회, 학교, 사회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가정에 있어서 특히 남의 식구와 같이 살 경우에는 잘 생각하여 식구들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 교회를 바로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지도하는 이단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 교우관계와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이 장로 일곱분 선출되다

지난 4월 17일 실시된 저녁예배 2차투표서

이원철 · 지금산 · 윤명식 · 김의철 · 조선근 · 김은호 · 오태희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지난 4월 17일 예정대로 1·2·3·4부 예배시 거행되어 당선자가 없었으나 저녁 예배의 2차투표에서는 7명이 새로이 장로로 선출되었다.

지난 3월 1일 당회가 목표하기는 7명이었으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목표 숫자대로 7명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현재 시무중인 28명에 더하면 우리교회는 모두 35명의 장로가 시무하게 된다. 그러나 정식으로 시무장로서 직무수행하려면 오는 가을에 열릴 수도노회가 시위·승인하고 당회가 정한 날과 장소에서 장로장립식을 거쳐야 한다. 이 후에 총현교회 당회원으로서 또 시무장로서 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總察)하는 일 ②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일 ③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교훈·간호하는 일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등의 직무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무장로서 신앙상의 특별한 흠이 없는 한 70세까지 봉사하게 되며 그 후는 우리교회의 공로장로제도에 따라 공로장로로 추대되게 된다.

춘기 성례식 거행

—성찬식 수찬자 수

2,970명으로 최고의 기록—

올 춘기 성례식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거행되었다. 3월 31일 오전 10시 유년부실에서 다수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개회예배(당회장 김창인 목사 설교/말씀 5:10) 후 이어 시작된 학습·세례·입교 문답은 4월 1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들에 대한 세례식은 4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당에서 베풀어졌다. 이를 종류별로 나누어보면 학습 178명(남 61, 여 117), 세례 190명(남 65, 여 125), 입교 22명(남 10, 여 12), 유아세례 45명(남 22, 여 23), 개종 1명(여)으로서 모두 436명(남 158, 여 278)이다.

또한 4월 3일 주일 낮예배(1·2·3·4부) 때에 있었던 성찬식에는 모두 2,970명이 참여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감사하였는데 우리교회 단일 성찬식으로서의 참여한 성도의 숫자가 가장 많은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제 1 회 주교운영 실무자교육

—주교 각부 부감·처장

업무처리 능력 향상 위해—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제 1 회 주교운영 실무자교육」이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열렸다. 주교 각부의 남녀 부감·처장·회계 등 12부에서 모두 75명이 참가하였고 교육위원회 각 분과위원들이 강사로 수고하였다.

실무자 교육은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활동의 지도를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주교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각부 부감, 처장 등 나아가서 교사 전체와의 대화(communication)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주교

운영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교운영의 실무를 체계화시켜 주교운영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이다.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계획된 실무자 교육이 다음은 7월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1 회 때에는 교육위원의 소개와 분과 소관업무 소개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실무를 교육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산업전도회 특별기도회

—4월 11일부터 한주간 동안—

산업전도회가 주최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주간 동안 유년부실에서 매일 새벽마다 있었다. 당회의 승인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번 새벽기도회는 앞으로 10월에 한번 더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교회당건축과 국가안보와 산업전도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정하여 놓고 실시된 이번기도회에는 백성룡 목사, 김재창 목사, 정상우 목사, 한광일 전도사(남전도회 개척교회인 부평 우리교회 시무)가 인도하였다.

신학교에 여러 교우가 진학

—총회신학에 5명 등—

확인 혹은 미확인된 소식에 따르면 본교회 교우 중에 유국남씨(대학부 교사)가 총회신학대학 연구원에 그리고 김연이씨(대학부 교사), 김진성씨, 이옥균씨(세신자부 교사), 김현숙 씨등이 총신 연수원에, 또한 정영남 집사와 장병기 집사, 정금숙 선생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에, 그리고 김정배씨가 칼빈신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몇분 더 있을 것이라 한다.

내달 심령 부흥회 열기로

—5월 15일 성전건축헌금 앞두고—

교회는 오는 5월 둘째주간에 교회 심령 부흥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부흥회는 특별히 오랜 기간동안 모든 성도들이 간구하여 오던 성전건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한다. 현재의 교회 장소문제로 인해 모든 행사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장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회에 참가하여 뜻과 정성을 모아야겠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로는 정석홍 목사(시내 신현교회 시무)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며 성회가 끝나는 5월 15일 주일에는 성전건축헌금이 있으며 성회 기간인 5월 13일(금) 저녁은 성전 건축을 위한 철야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매월 교회 철야기도회 실시

—첫주 금요일, 교회와 국가안보 위해—

지난 3월 29일 열린 정기당회에서 온 성도를 위한 교회 철야기도회를 매월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주 금요일에 실시하게 될 이 철야기도회는 ① 기도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② 성전건축을 위하여 ③ 국내전도와 해외선교사역을 위하여 ④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있는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⑤ 5천만 민족이 믿음의 한 형제 되는 민족의 회개운동을 위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4월 8일(금) 첫번 철야기도회를 실시한 바 있다. 5월은 부흥성회와 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둘째 주간인 5월 13일(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감명 준 축하 음악예배

—부활절 맞아 제일·제이 성가대—

성가부(부장 임광식 장로)는 부활절을 맞아 축하음악예배를 드리었다. 제이성가대(대장 이병학 집사)는 4월 6일(수) 저녁, 제일성가대(대장 지금산 집사)는 4월 10일(주일) 저녁에 본당에서 온 성도와 자리를 함께 하여 음악예배를 드리었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4. 3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Ⅰ Ⅱ Ⅲ	85,230
예 배	주 일 낮	148	302	450	심령감생경건운동미	Ⅰ	257,840
	주 일 저녁	408	986	1,394		Ⅱ	230,350
	주 일 밤	372	813	1,185		Ⅲ	2,678,410
주 일	새 신 자	249	512	761	주 일	조 정 사 일	312,830
	아 치 년	143	367	510		조 속 산 수	443,000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52,300
학 교	새 신 자	32	29	61	주 일	조 속 산 수	53,000
	아 치 년	19	44	63			603,500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50	47	97			26,000
학 교	새 신 자	54	90	144	주 일	조 속 산 수	6,000
	아 치 년	152	154	306			2,545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158	185	343			13,515
학 교	새 신 자	197	156	353	주 일	조 속 산 수	15,040
	아 치 년	156	174	330			23,625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67	87	154			18,100
학 교	새 신 자	35	80	115	주 일	조 속 산 수	24,590
	아 치 년	29	262	291			52,710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24	62	86			
학 교	새 신 자	9	38	47	주 일	조 속 산 수	
	아 치 년	2,302	4,388	6,690			
	유 유 초 중 고 대 청 장 노 산 업 교 육 부						
계				2,302	4,388	6,690	4,899,585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	습	원	인
2,588	2,324/3,605	1,354/2,516	298/233	224/332	448/524		

토막소식

*...전도위원회는 현재 아세아 방송국(1570KHz)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15분간 실시되는 김창인 목사의 방송설교 외에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30분간 주일 낮 설교를 방송하기로 하였다.

*...전도위원회는 오는 5월 24일(화) 육군 ○○부대 장병 600명에 대한 합동 진중세례식을 부대 연병장에서 갖는다.

*...구역권찰회는 삼성구역 권찰회에 최 규씨(여)를 보신하였다.

*...동산관리위원회는 현재 1기당 기본금 50,000원으로는 관리비도 충당할 수 없어 앞으로는 기본금 50,000원 외에 성의껏 현금을 받아 관리비에 쓰기로 하였다.

*...김영삼 집사 장로 장민식이 5월 17일 저녁 8시 충현교회 본당에서 있다.

*...5월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오후 8시로 변경된다.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주일 행사를 5월 1일, 어버이주일 행사를 5월 8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필경사로 김차철 씨를 채용하였다.

*...영아부 부지도로 이우선 선생(총신 2년제학)이 임명되었다.

*...유치부 부감 조선근 집사 후임에 박치민 집사가 임명되었다.

*...유치부는 5월 1-4일 반별친교회를 갖는다.

*...유년부는 5월 27일 저녁 교사 철야기도회 갖는다.

*...청년부 지도로 윤영탁 전도사(총신 교수)가 임명되었다.

*...청년부는 5월 7일 경로회를 가진다.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로 김순애 전도사(칼빈신학교 졸업)가 임명되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5월 8일 기업주 초청과담회를 연다.

*...노년부는 5월 22일 양로원을 방문한다.

오늘!

교회 성경암송대회 · 오후 3시

연집하고 나서

기 자 석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장소가 좁아 교회전물을 확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이다. 이러한 여론과 실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본당 주변의 주택을 사들여 대지를 확장했고 1970년에는 성전건축부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이 성전건축문제는 해결되지 못한채 답답하게 가슴만 조이게 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와 열심이 부족한데 있다고 본다. 흡사 혼잡한 시장속 같은 좁은 교실속에 어린 생명들을 교육한답시고 몇백명의 몰아쳐 놓고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구호만 높이 외쳐 온 우리의 이중 삼중의 무관심의 결과이다.

○...기도하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 마르도록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자.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자!

〈표〉

○...혼히들 질서를 따지자면 학교를 예로든다. 여기가 학교인가? 자기가 선생인가? 하는 반발속에서 타이르는 것은 특정한 자기 권위의 식속에 덤으로 던져 주는 한마디의 개성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한다. 한 예로 주일날 오후가 되면 보통날은 보이지 않던 휴지통들이 성전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안타까움을 휴지통의 모자람으로 알고 산업전도회는 교회의 구석구석에 휴지통을 세워 놓았다.

○...과연 성전안에 그렇게 많은 수요의 휴지통이 필요할런지? 극단은 피하고 중용과 타협과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들이 어린생명들에게 어렵지 않은 본보기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산업전도부에만 국한되지 않은 줄을 믿는다. 지금은 많은 휴지통이 있지만 인젠가는 무용지물이 되어 고물상에서나 제 구실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

○...근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서 한 친구가 “나중된 자 먼저 되겠다”란 선언을 하였다. 그 저의(?)가 인간적인 완성이나 불만투성이 삶을 정리하고 어깨를 번듯이 펴기 위함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이런 말을 했다 “난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근래 내가 얼마나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는지 몰라...”

○...“무지, 이런 것이 깨어지고 진정 믿음에 있어서 나중된 자 먼저 되겠다”라고 재차 선언한 그 친구의 적극적인 갈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뭘 해야」 하고 「어떡어떡해야」했다가 아닌 믿음과 아는 일과 행함이 일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럴수록 주님께 무력함을 내어놓는다.

〈인숙〉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힘에 자신의 발전과 번영 평화와 구원의 문제까지 종두리째 맡기고 자기의 존재와 삶의 의미까지도 물질적 가치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오가는 이야기가 “어떤 아파트 몇평짜리냐”로 그 사람에 신분과 인격을 판가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고 물리적 힘을 숭배하는 가운데 인간은 결국 스스로 멸망과 비인간적 인연을 초래하고 있다.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이 없다 증거하는 자가 수난의 아픔과 상처 없이 증거할 수 없으며 믿는자가 인내없이 소망을 갖을 수 없는 것이다. 부활에 확신이 있는자들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불빛을 밝혀야 하겠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현실의 죽은 영혼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겠다. 이것만이 비인간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인간답게 부활시키는 하나에 과업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만 국한하여 슬퍼하고 가슴치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동정까지 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으뜸 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것 뿐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죽으심의 고난에만 치우치게 아니라 부활을 찬송하고 기뻐하여 고난과 부활을 연결시켜야 하겠다.

〈영〉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이북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은 패려가 되어 흔적조차 찾아 보기 힘들 교회들, 공산당의 온갖 고문과 조롱속에 순교자의 뒤를 따른 성도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번 4월호에는 소련에서 탈출하여 대공산권 복음전도에 힘쓰고 있는 소련인 클라센(David Klassen) 목사의 간증설교를 실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장래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답하는 뜻에서 이준교 천도사(대학부 부지도)의 “신앙과 직업”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미 우리 교회 대학생들에게 필자가 직접 강의한 바 있지만 그외의 젊은이들과 또한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자도를 알고 있는 청소년지도 교역자들의 상담자료 제공이라는 면에 뜻이 있으리라고 본다.

표지 설명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여러곳에서 여러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10,000교회운동, 전군 신자화운동등도 일어났다. 오래전에 처음으로 경복(警牧)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복운동 시작하여 성공한 우리 교회는 최근에는 전군 신자화운동에 발맞추어 군(軍)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을 통한 군선교, 성경찬송 보내기, 군복지원등 함께 합동세례식을 요청에 의하여 베풀기도 한다.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불씨로 가는 곳곳마다 커다란 불길을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합동세례식의 모습을 담았다.

월간「충현」4월호 통권 제10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송순일

주간/정관일

편집국장/조신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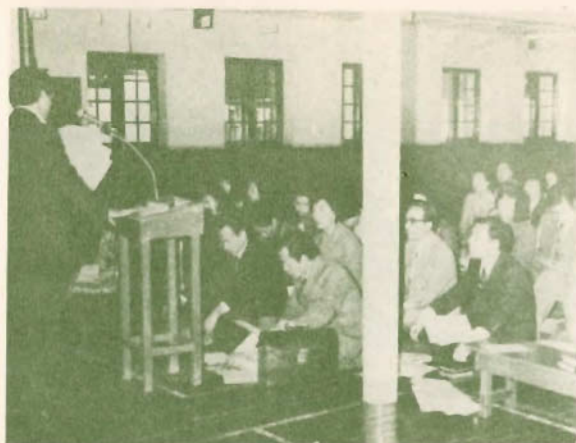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4월 24일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제 1 회 실무자교육이 4 월 10 일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각부 부감·처장·회계가 참가하였다.



↑ 세계선교를 위해 일하시는 스웨덴 출신 스텐펠트(Stenfelt)목사가 지난 3 월 27 일 저녁 설교와 다음날 특강을 해주었다(오른쪽이 스텐펠트 목사).



↑ 제 1 성가대는 4 월 10 일 저녁 대예배실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음악예배를 시드니·피터스국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지고 드렸다.



↑ 제 2 성가대는 고난주간을 맞아 4 월 6 일 대예배실에서 바하의 「요한수난곡」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음악예배를 드렸다.

장로투표(4.17)에서 피선된 분들 (연령순)



◇ 이 원 철(중경장로)
· 청년부 부감
· 남전도회 부회장



◇ 지 금 산(집사)
· 제일성가대 대장



◇ 윤 명 식(집사)
· 초등부 부감
· 산업전도회 교육부장



◇ 김 의 철(집사)
· 대학부 부감
· 전도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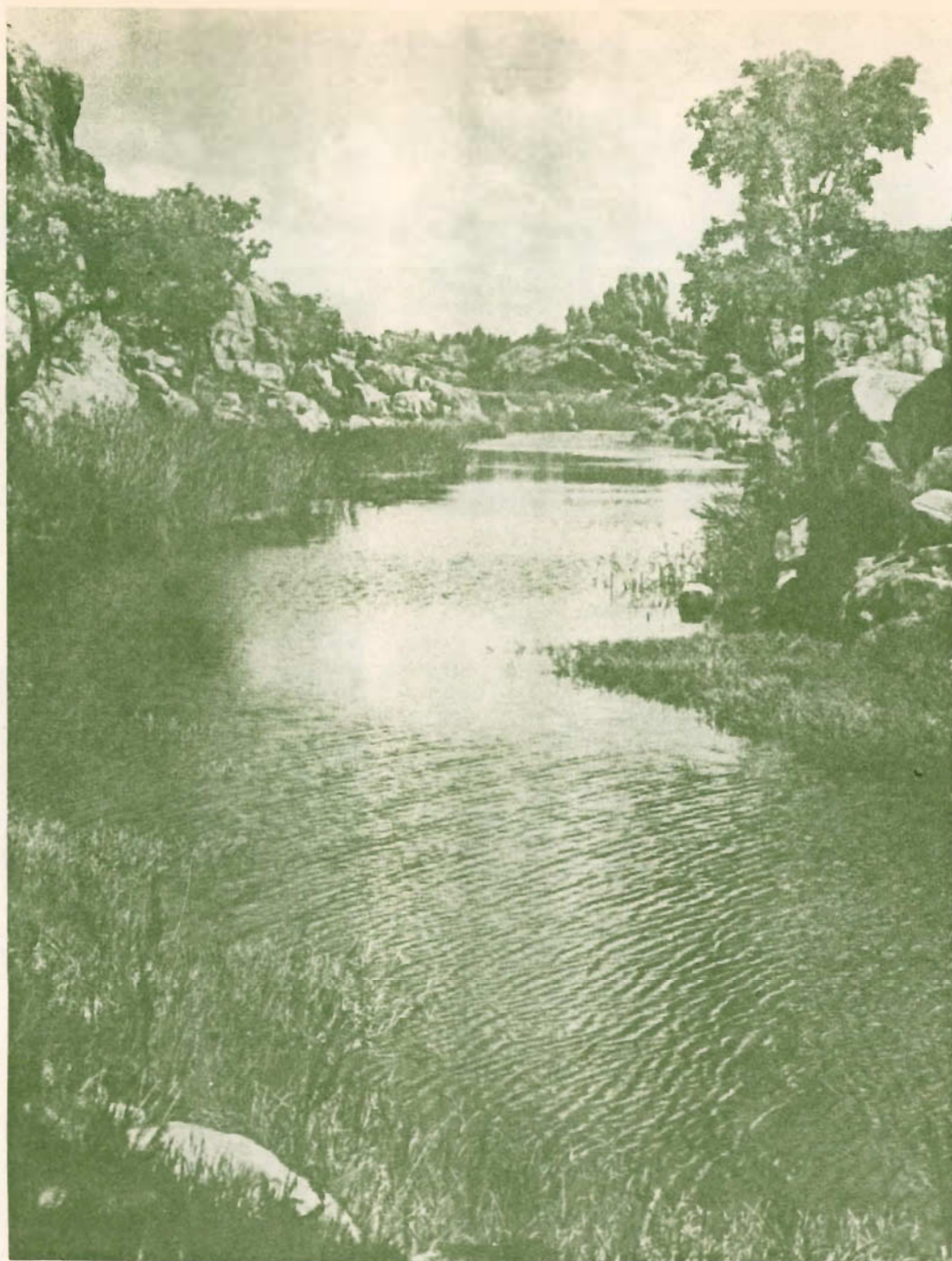
◇ 조 선 근(집사)
· 월간중현 편집국장
· 해외선교회 실행위원



◇ 김 은 호(집사)
· 장년부 부감
· 산업전도회 서기



◇ 오 태 희(집사)
· 유년부 부감
· 남전도회 전도부장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시편 23 : 1,2)

현대인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했다. 우리를 옳은 데로 이끌어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현대인은 방향상실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의 안식처를 잃었다. 내 몸을 편히 쉬게 할 푸른 풀밭이 없고 내 마음을 맑게 씻어 줄 잔잔한 물가를 잃어버렸다.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이 필요하다. 권태와 피곤의 심신을 쉼 쉬게 해야 한다. 문명의 독소로 오염되고 혼탁해진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가 필요하다. 나를 이끌어 주는 선한 목자도 있고 내 심신을 쉬게 할 푸른 풀밭도 잔잔한 물가도 못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다.

당신의 목자는 누구인가? 당신의 풀밭과 물가는 어디에 있는가?

*안병욱 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중에서.

실로암
못가에서

□월간충현 4월호